



세종 논평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No. 128
(2009.1.2)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북한은 2009년 새해 첫날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올 신년공동사설의 초점은 무엇이며, ‘정책부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북한의 대내정책,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spaik@sejong.org

초점

올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모든 초점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는 ‘제2의 천리마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대중사회주의경쟁운동, 대중사상혁명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이에는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신년공동사설은 올해를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라고 규정하고, “전후[6.25전쟁 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는 김정일위원장의 어록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하면서 새로운 국가목표의 제시가 필요하였고, 1990년 후반부터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2의 천리마대고조’를 이야기하여 왔다. 북한은 1998년 ‘성강의 봉화’, 2000년 ‘낙원의 봉화’, 2002년 ‘라남의 봉화’ 등을 통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말하여 왔으나, 김정일이 1956년 천리마대고조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옛날의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여 ‘강선의 봉화’를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 즉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호소(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부문 우선순위

이번 신년공동사설의 ‘정책부문 우선순위’를 보면, ‘수령’, ‘당’, ‘정치사상’, ‘경제’, ‘군’, ‘근로

단체’, ‘남북관계’, ‘대외관계’ 순으로 되어있다.

첫째, ‘당’이 ‘수령’ 다음에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을 ‘정치사상’보다 앞에 놓음으로써 ‘당’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경제’를 ‘군’보다 앞에 위치시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군’을 후순위에 배치하고 있다. ‘당’이 이처럼 최우선 순위에 위치한 것도, 선군정치 하에서 ‘군’이 이처럼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도 최근에 없던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당’의 위상을 회복시켜 ‘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성’ 내지 ‘정상성’(正常性)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 동안 선군정치 하에서 ‘과도하게 힘을 갖게 된 군’을 통제하려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난 해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리더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긴 이후, ‘정치인’ 김정일이 자신의 통치 및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본능적으로 ‘당’에 힘을 실어주고 ‘군’의 힘을 빼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신의 통치권 강화와 후계정치에 대한 김정일의 이러한 고려는, 아래의 ‘대내정책’에서 설명하겠지만, 제2의 천리마운동이라는 대중사상혁명을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에서도 확인된다.

대내정책

이미 지적했듯이, 올 신년공동사설의 대내정책의 초점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에 본격적인 ‘강성대국의 개막’을 앞두고 앞으로 3년간 한 단계 높은 증산과 기술혁신, 그리고 사상적 동원을 하겠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중동원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김정일은 지난 해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하여 ‘강선의 봉화’를 올릴 것을 호소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 12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전신인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철강 증산을 호소함으로써 ‘천리마운동’이라는 대중사상혁명운동을 일으켰었다. 김정일은 이번에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그 ‘이미지’를 되살려 또 한 번의 대규모 대중사상혁명운동을 시작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 건설’의 “문패”를 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천리마운동’은 경제건설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중동원운동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해 8월 전원회의에서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한 이후 ‘종파주의자’와 ‘대국주의자’(연안파와 소련파)를 궤멸시켜 김일성의 권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대중사상운동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김정일이 이번에 ‘제2차 천리마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난 해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으로 김정일의 리더십과 후계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 대규모의 대중사상혁명을 통해 자신의 통치력을 확고히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후계구도의 포석을 놓기 위한 목적이 또한 있다고 할 것이다.

대남정책

북한의 올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남북관계 부문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 ‘표현과 내용이 매우 강력하며 단호하다’는 것이다.

공동사설은 “미쳐 날뛰는”, “총파산”,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 “정상배들의 농락물”, “송미

사대주의”,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 통치를 쓸어버리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집권으로 생겨난 ‘엄중한 도전’을 지적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전면 부정’, ‘파쇼 독재시대’로의 회귀, ‘남북대결’을 비난하고 있다.

공동사설은 또한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의 표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에 어떤 변화가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김정일이 자신의 건강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당’을 강화하고 또 ‘제2의 천리마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후계구도를 짜 나가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자신과 북한체제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고 대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올 신년공동사설은 ‘대외정책’ 부문을 시작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은 새로 들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새 미국정부가 긍정적으로 신뢰할 만하게 나온다면 자신으로서는 6자회담에 신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부시정부 시절에 최악의 북미관계 악화를 경험해 온 북한으로서는 오바마와 그의 참모들이 그 동안 대통령선거운동 기간과 대통령직인수 기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밝힌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와 그의 외교안보팀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에 관한 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해 왔다. 자신의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다른 나라에게 이 문제를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여 북핵문제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따라서 올해 북미관계는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 덕분에 비록 우여곡절과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 해도 결국은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정상화, 에너지·경제협력,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vs. 북미관계

이번 신년공동사설의 내용도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4일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 위기에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죄행을 폭로 단죄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고발장”에서 남북관계 파탄의 “장본인”으로서 남한정부를 지목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가 올해도 작년과 같은 대북정책을 지속한다면, 남북관계에서의 큰 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악화’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호 간에 큰 대조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올해는 북한의 본격적인 ‘통미봉남’ 정책으로 인해 우리정부가 또 다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절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이 먼저 혹은 양쪽이 동시에 ‘고개 숙이고’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비현실적인 희망으로 생각된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1년 동안 당국 간의 대화가 실종되고 불신이 깊어지고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중단 직전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파탄’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것이 본 저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올해 들어 북핵문제 해결에서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남북한 모두가 우리민족의 생존과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국제정치에서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가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0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sejong.org>
문의 : commentary@sejong.org

